

전북문화관광재단 브랜드 상설공연

뮤지컬 '뫘다 심청' 제작 본격화

총연출자에 장선우 감독·협력연출가에 백민기 대표 위촉... 무대미술 등 전문가들 위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4월경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판타지 뮤지컬 '뫘다 심청'의 연출가를 선임하고 공연제작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에 재단은 총연출자로 장선우(64) 영화감독을, 협력연출가에 백민기 소극장 대표를 각각 위촉했다.

총연출을 맡은 장선우 감독은 우묵배미의 사랑(1990), 경마장 가는길(1990), 남부군(1990), 너에게 나를 보낸다(1991), 꽃잎(1996), 거짓말(1999) 등 다수의 영화연출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장 감독은 한국영화의 역사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논쟁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장선우 감독



백민기 대표

그의 작품은 사회적 금기를 조롱 하는 듯한 자유로움이 표출되며 '한국영화의 전위'로서 충격을 던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영화제 최우수작품상(1997·꽃잎),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영

화상(1997·나쁜 영화),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1990·우묵배미의 사랑), 청룡영화상 감독상(1994·너에게로 나를 보낸다) 등을 수상하며 199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으로 입지를 다졌다.

장 감독과 함께 임명된 백민기 협력연출가는 전북지역의 연극관을 지켜오고 있는 젊은 예술가이다.

그는 살인놀이·빈대떡 신사·분장실·도덕적 도둑·집 등 다수 작품을 연출했으며, 제15회 전북연극제 최우수연기상(1995)을 수상했다.

재단은 이들 외에도 무대미술, 음악감독 및 작곡, 조명디자인, 영상디자인 등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본격적

인 연습과 함께 제작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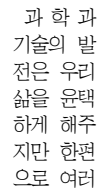
2017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판타지 뮤지컬 '뫘다 심청'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인 효녀 심청스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이는 가무악과 현대 미디어 아트가 결합한 판타지 형태의 뮤지컬로 제작돼 전북예술회관에서 총176회의 상설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대본은 '심청전을 짓다'로 2015년 '제3회 한국여성극작가전'에서 이름을 날린 극작가 김경숙 극단모시는 사람들 대표가 맡았다.

재단 관계자는 "뮤지컬 '뫘다 심청'이 한옥마을과 전주를 관광체류형의 관광명소로 변화하는 촉매제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풀어본다

정광수 교수 '과학기술윤리연구' 출간



정광수 교수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 여러 윤리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러한 과학의 의미와 함께 수반되는 윤리학의 문제를 학문적 관점에서 되짚은 책 '과학기술윤리연구'가 전북대학교 정광수 교수(자연대 과학학과)에 의해 출간됐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윤리적 문제들과 직면하게 한다.

생식보조기술의 발달로 인공생식을 통한 아기 생산의 도덕적 문제, 첨단정보기술의 발달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과 해킹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생명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생명의료윤리' (bio-medical ethics), '정보통신윤리' (information - technology ethics)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기술'과 철학의 '윤리학' 분야가 소통하게 되는 학문 영역을 '과학기술윤리연구' (Ethical Studies of Science & Technology)라 명명하고 사례별로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부당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생명과학과 기술발달의 윤리를 비롯해 컴퓨터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과 윤리, 로봇기술의 성장과 윤리, 핵무기 개발과 윤리, 연구 윤리 등을 상세하게 다룬다.

또한 '과학기술윤리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연과학의 의미와 분류, 과학·기술의 가치, 그리고 윤리학의 의미 등의 기본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정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여러 윤리적 관점에 부당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뉘게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소리문화전당,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전시부문 선정

공연 '프로젝트 스몰몬스터' 전시 '예술놀이터-색·빛·소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진성진)이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공연·전시부문에 선정돼 총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문예회관의 우수 기획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국고에서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전국 문예회관들의 기획력을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연부문 선정 작인 '프로젝트 스몰몬스터'는 전당의 대표적인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년 지원액이 100%씩 인상돼 올해는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창작 할 지역의 신진 예술가 공모전으로 3월중 진행 예정이다. 기존 의 음악부문에 장르를 확장, 국악·무용·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전시부문 선정 작인 '예술놀이터-색·빛·소리'는 전당이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상설 전시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는 색·빛·소리를 주제로 한 특별한 예술체험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체험전이 완성된 콘텐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반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당이 자체적으로 테마를 정하고 작가를 선별하는 자체 제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전당 관계자는 "우수한 콘텐츠를 도내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전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Hello!! 아프리카' 관람객 5천명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Hello!! 아프리카'가 아이들은 물론 성인까지 큰 호응을 얻으며 전시 1주차 관람객 5천여 명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수백 명의 단체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전시 마지막 날까지 단체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또한 주말의 경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는 아이들은 물론 중고등 학생과 젊은 연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했다.

'Hello!! 아프리카'는 어린이 행복도시에 걸맞은 콘텐츠로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기획한 2017년 첫 기획전이다. 아프리카 현지 해설사와 국내 해설사가 상주하며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프리카를 체험할 수 있어 아프리카에 대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화피플스 덕진' 수강생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문화피플스 덕진'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오감을 이용한 예술놀이인 '변신오색동굴'은 사물 이미지를 단순화한 놀이감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4일·15일, 21일·22일 오후 3시~5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7명을 모집한다.

또 나무에 그려보는 '일상'은 일상에서 겪은 사건과 감정을 드로잉(우드버닝)을 통해 표현하는 강좌로 14일·16일, 21일·23일 오전 10시~12시 열 모집인원은 5명으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rtpolice379@gmail.com)로 발송 또는 방문(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97-6 티스테이션 타이어가게 옆) 제출 하면 된다.

수강료는 과목당 1만5,000원이며, 수강료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에 살리라'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4월 10일까지 근대미술관에서 도립미술관 초대전 '군산에 살리라'를 개최한다.

전북도립미술관 도모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탁류가 끝나는 곳, 풍요로운 들과 근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군산을 주제로 군산에 터를 잡고 뿌리 내린 군산 미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군산 출신 화가로 7세부터 수묵화를 그려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허반영 화백, 일평생을 작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하며 한지회화를 세계에 알린 문복철 화백, 70년대 중반부터 '마포' 시리즈 작품을 계속 해오며 앞서가는 전시대상을 보여준 박찬년 화백의 작품 등 서정적이면서도 담백한 군산의 풍경과 삶의 미의식을 담았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으로 개관한 근대미술관은 근대기 활동한 작고화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시간의 흔적'을 비롯 근대 유명작가와 중국, 일본 등 대표 작가들의 서예작품을 주제로 한 '먹의 숨결', 신태균 사진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한 '필름속의 추억'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9일>



▷쥐띠

48년생: 문서에 결성이 비추니 계약을 하기에도 유리하다.
60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나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라.
84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다.



▷소띠

49년생: 반갑반올의 운이다. 그 다음수를 생각하고 움직여라.
6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가장 아리석은 것은 건강에 대해 자만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7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85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해도 큰 도움은 안 된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다.
62년생: 판단 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물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할다.
86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투자나 투기는 금물이다.



▷토끼띠

51년생: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이나 마음의 평안에 집중하라.
63년생: 놀랄 일이 발생하니 원형을 삼가라.
75년생: 감기와 같은 기관지 계통의 질병에 주의할 운이다.
87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용띠

5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힘든 일도 잘 풀릴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키라.
64년생: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라.
76년생: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일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라.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말띠

53년생: 지금은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정일 뿐임을 잊지 마라.
65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할 듯.
77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듣기에는 쓴 소리이지만 귀를 기울이면 말 속에 해답이 있을 듯.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지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물을 골라 상대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마음을 비울 것.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해왔자 결실을 맺지 못한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이다.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삼가라.
69년생: 아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93년생: 원형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밝이 없었다.



▷개띠

46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사람들과의 모임도 길하고 금전운도 좋은 운.
70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2년생: 처음에 손해를 보면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다른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가벼운 산책이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볼 것.
83년생: 급하게 상황에 쫓겨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